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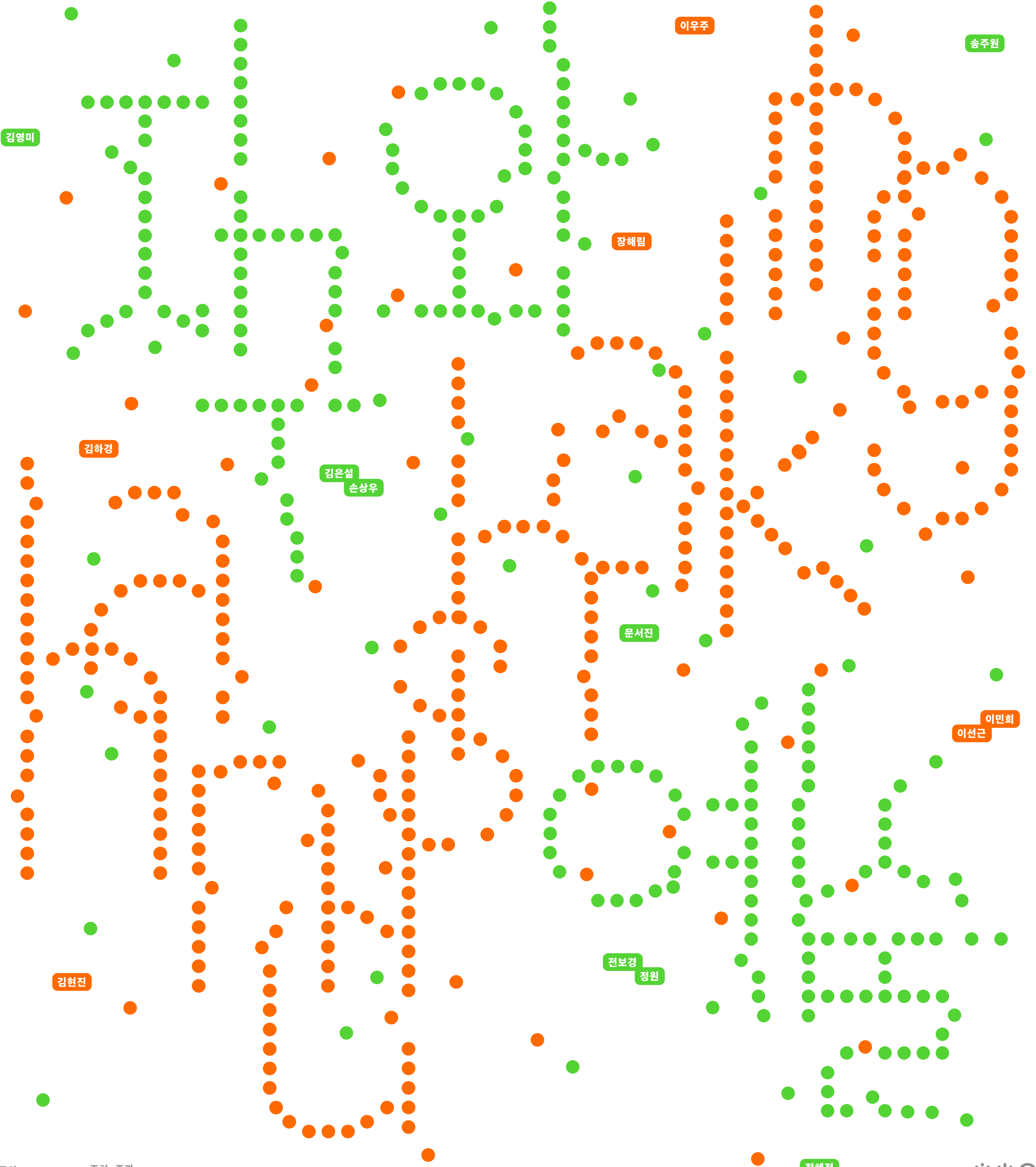
# 2021-2022

## 공동창작 워크숍: 지구와 예술 handshaking

### 2022.5.16. - 5.29.

윈드밀 WINDMILL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 지하 2층



# 지구와 예술

## 초대의 글

2021—2022 공동창작 워크숍은 ‘지구와 예술’이라는 열쇠말을 가지고 14명의 작가와 함께 고민하고 상상하며 지난 일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021—2022 공동창작 워크숍: 지구와 예술 — *handshaking*》 전시로 선보입니다. ‘약수: handshaking’라는 인사법이 품은 평등하고 친근한 관계 맺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감각과 매체를 사용하며 주고받은 질문과 시도들이 담겨있습니다.

## 관람안내

2022.5.16.(월)—5.29.(일) 11:00—19:00 / 휴관일 없음

무료관람

## 장소

윈드밀 WINDMILL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 지하 2층

\*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 참여작가

김영미, 김은설, 김하경,  
김현진, 문서진, 손상우,  
송주원, 이민희, 이선근,  
이우주, 장해림, 전보경,  
정원, 정혜정

## 큐레이터

장혜정

## 코디네이터

박선호, 박현진

## 문의

02-423-6603

## 주최 · 주관

시립미술관 | 잠실창작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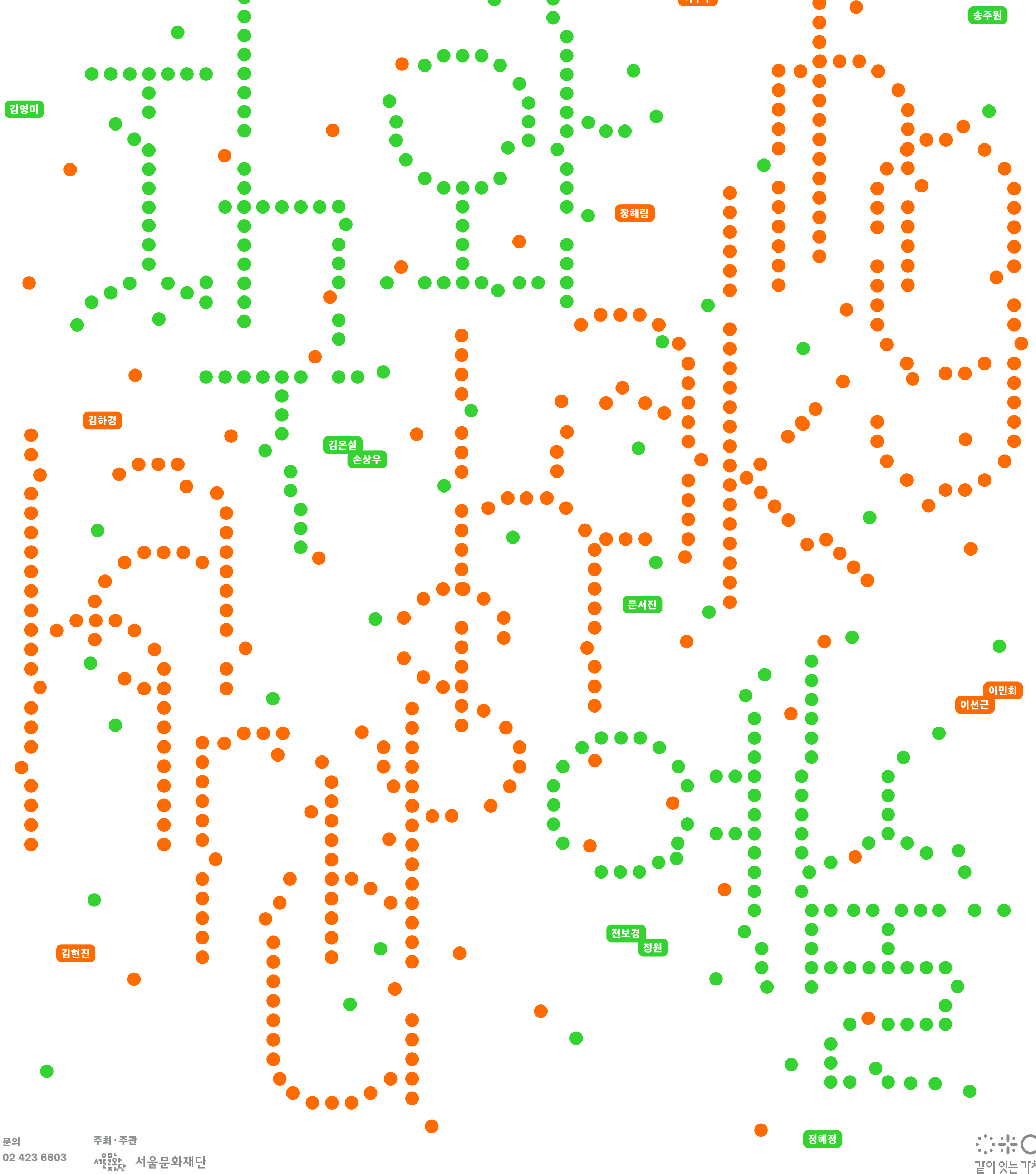
## 협력

금천예술공장  
서울무용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 2022.5.16. - 5.29.

윈드밀 WINDMILL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 지하 2층



문의  
02-423-6603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같이 잇는 가치

## 소개글

완벽하지 않은 여럿의 '나'는 2021-2022 공동창작 워크숍: 지구와 예술을 통해 만나, 서로의 완벽하지 않음을 핑계 삼으며 미루기보다는 지금의 우리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4인의 예술가는 3개의 팀이 되어 작은 단위로 때로는 큰 단위로 함께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저마다의 답과 의미를 찾는 기로에 있지만, 함께 질문한 '지구와 예술', 그 사이의 '새로운 관계 맺기'에 대한 개인이자 예술가로서의 다층적인 생각과 마음이 2021-2022 공동창작 워크숍: 지구와 예술의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맺음을 상상하며,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수; handshaking'은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태도,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합의가 내포된 인사입니다. 약수가 가진 의미처럼, 위계 없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친해지기 위한 예술가들의 시도, 우리 자신을 지구의 부분으로 포함하며 인간-존재와 그보다 훨씬 많은 비인간-존재, 그사이의 무수한 관계의 열개를 다시 그려보려는 실천과 질문의 모음이 전시 2021-2022 공동창작 워크숍: 지구와 예술\_handshaking입니다.

## 전시 개요

제목	2021-2022 공동창작 워크숍: 지구와 예술_handshaking
일시	2022. 5. 16.(월) - 5. 29.(일) 11:00 - 19:00
장소	윈드밀 WINDMILL(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 지하 2층)
참여작가	김영미 김은설 김하경 김현진 문서진 손상우 송주원 이민희 이선근 이우주 장해림 전보경 정원 정혜정

## 팀소개

### 음당

김현진 문서진 송주원 이우주 장해림 전보경

### 지구인되기

인간의 관계가 아닌 '지구적 관점'으로 감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구적 존재로 보았을 때, 어떤 시야와 감각, 어떤 차원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김현진, 문서진, 송주원, 이우주, 장해림, 전보경은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방문자 혹은 임시 거주자로서 지구의 다른 (비)생명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각자의 방식으로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연대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과 작업에 있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구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몸과 움직임으로 만날 것인가. 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유기적인 형태로 다층적인 작업을 구성하고 있다. 정기적 만남을 통해 작업 과정 중 서로 고민되는 것과 피드백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비둘기들

김은설 김하경 이민희 정원 정혜정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현재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 도시화된 자연물이다. 우리들 역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살며 혐오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고, 우리 또한 비둘기처럼 도시화된 자연물로서 존재함을 말한다.

작업의 키워드로 출발한 '섬'은 은유적 표현과 물리적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섬'이라는 것은 외딴곳에 있는 고립된 장소 같아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 다른 여러 섬들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마주한 지구적 문제를 역시 모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얽혀있기도 하다. 연대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작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것을 희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직접 '섬'에 '함께' 가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1. 관념적인 말들이 아닌 우리의 몸을 통해 실제로 이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했고,  
2. 낯선 장소에서 온전한 나와 우리를 바라보기를 바라며,  
3. 함께 여행하며 협업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이고,  
4. 무엇보다도 그동안 늘 육지로부터 타자화되어왔던 공간인 섬 그 자체가 되어보자는 상상을 하고자 해서이다.  
그 출발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섬-되기'를 실천한다.

## 뷰티풀플랜

김영미 손상우 이선근

우리는 우리가 환경파괴에 기여하는 창작활동 혹은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공동창작 워크숍' 그리고 '지구와 예술'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예술가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은 거듭된 대화를 통해서 지구에서 버려지고 버려지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만약에 지구가 당장 종말 한다면? 과연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의 모습과 풍경은 어떤가?" 라는 단순한 질문의 시작으로 출발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끔찍하고 비극적으로 연상되었지만 우리는 예술가로서 종말의 모습을 아름다움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 관람안내

관람시간	2022. 5. 16.(월) - 5. 29.(일) 11:00 - 19:00 / 휴관일 없음 * 무료 관람
문의	02-423-6603
오시는 길	윈드밀(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 지하2층) *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 주차 4대 가능합니다. 

## 김현진 《위》 2022, 관객참여형 프로그램

일정	전시기간(2022. 5. 16. - 5. 29.) 중 매일 16:00 - 17:30 * 총 14회
참여 방식	온라인 사전 신청 * 회차당 1명  온라인 사전 신청 링크 <a href="https://forms.gle/FPzpcZ1thiLcbTE6">forms.gle/FPzpcZ1thiLcbTE6</a> 

## 함께한 사람들

큐레이터: 장혜정  
코디네이터: 박선호, 박현진

공간 디자인/설치: 아워레이보  
그래픽 디자인: 프론트도어  
모션 및 웹사이트 디자인: 최예인  
웹사이트 개발: 박지연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협력: 금천예술공장, 서울무용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전시 웹페이지 바로가기 (5/16 오픈 예정)  
[handshaking.kr](http://handshaking.kr)